

475-551년 한강 하류 유역 領有國 문제에 관한 考察

윤대준

재단법인 성균관 T/F팀 학술팀장 ,한국사학/고고학
taeyum@hanmail.net

I. 머리말

II. 475-551년 한강 유역 領有國에 관한 논쟁

III. 관련 사료의 지명 검토

IV. 한강 이남의 고구려 유적

V. 맺음말

I. 머리말

삼국시대 서울을 위시한 한강하류유역은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그 땅을 영유하였다. 기원을 전후한 무렵 백제는 이곳에 도읍하였고, 이곳을 거점으로 3-4세기에는 오늘날의 경기도 전역, 황해도 강원도 일부와 충청도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며 고대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진다. 그러나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과 함께 수도가 함락됨으로써 한강하류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하던 백제는 나라의 근원지인 한강하류유역을 상실한다. 그리고 76년간의 한강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는 551년 신라, 백제, 가야의 연합군에 의한 공략과 함께 막을 내리고 이후에는 신라의 영토가 된다.

이러한 기왕의 통설에 대해 80년대 이후 사료상 하나의 큰 장애가 지적되어 왔다. 『삼국사기』백제본기의 기사가 그것이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는 고구려의 한성 점령이후에도 한강 이북에 비정될 수 있는 지명 관계 기사가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다. 사실 475년에서 551년 사이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지명만을 고려한다면 고구려와의 접전지는 475년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로 80년대 이후, 기존의 통설에 대해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며 『삼국사기』백제본기 기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강 유역 백제영유설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료상의 난맥은 아직도 명확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여러 학자들의 추론만이 난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행히 고고학적 성과는 2000년대에도 꾸준히 축적되었고 이 방면에서 획기적인 몇몇 성과를 낳았다. 바로 고구려의 석실분이 한강 이남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굴됨으로써 고구려의 한강 이남에 대한 영역지배로써의 적극적인 흔적이 확인된 것이다. 보루성 같은 관방유적이 영역지배의 근거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반면, 귀족 계층의 분묘는 확고한 영역지배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성과로 인해 이제는 사료상의 어떠한 난맥이 학자들 사이의 이견을 가져왔는지 되짚어보고, 이러한 뿔뿔이 고구려계 석실분과 같은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에 의해 얼마만큼 상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475-551년 한강 유역 領有에 관한 최근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인 관련 사료인 『삼국사기』백제본기와 『삼국사기』지리지의 기사를 검토하겠다. 다음으로는 현 단계에서 고구려 계통의 관방유적이 영역문제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끝으로 최근 발굴된 고구려 계통의 고분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이견의 해소에 다소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다만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계통의 석실분이 주로 한강하류유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충주 등지의 한강 중·상류역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재편된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¹⁾을 고려해 본고는 그 공간적 범위를 한강하류유역, 즉 현재 경기도 남부 일대에 한정하고자 한다.

II. 475-551년 한강 유역 領有國에 관한 논쟁

475-551년 한강 유역 領有國에 관한 논쟁은 백제영유설과 고구려영유설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²⁾ 백제영유설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논쟁의 발단을 제기한 이는 양기석이다. 그는 1980년의 논문³⁾에서 “... 『일본서기』의 551년 한수유역 회복 기사에 신뢰를 두고 성왕 말기에 백제가 비로소 한강유역의 고토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데 대해 재고를 요한다”고 했다. 그리고 백제본기의 동성왕대와 무령왕대 한수유역 관련 기사를 사실로 인정한 가운데 지명을 분석한 후 “웅진 남진 당시 고구려와의 경계선이 대략 아산반에서 괴산, 진천, 직산 이남이었는데 반해 무령왕 때는 백제의 강역이 황해도 신계, 연천, 가평, 황성, 예천을 연결하는 한강 유역 일대까지 확장되었고, 舊都 한성도 확보된 듯 보인다.”고

1) 한강하류유역에서는 여주 보통리(1970년), 성남 관교동(2007년), 용인 기흥동(2007년), 화성 정계리(2008년)에서 그리고 한강중상류지역에서는 충북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2008년)에서 고구려 계통으로 보이는 석실분이 확인되었다. 지리적 입지의 측면에서 볼 때 여주, 성남, 용인, 화성은 모두 남한강의 서쪽, 현재 경기도 남부 평원의 일부를 이루는 자연적 지세를 보인다. 반면 한강중상류역에 위치한 충주지역은 산악지형으로 경기도 남부의 평원지대와는 현저한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자연적 지세의 차이는 이들 지역으로의 고구려 남진 시기와의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충주 등지로의 고구려 진출은 장수왕의 한성 함락 이전 광개토왕의 남진과 더불어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475-551년 한강 유역 領有 國에 관한 연구사 정리는 김현숙의 「475년-551년 한강 유역 영유국 인식에 대한 검토」, 『향토서울』73(2009)에 자세하다.

3) 양기석, 「웅진시대의 백제지배층연구」, 『史學志』14, 단국대학교 사학회(1980), 23쪽.

했다. 이렇듯 백제본기의 기사를 신뢰하는 입장은 이후 성주탁, 차용걸, 박찬규, 김영관, 김병남, 김현숙 등에게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입장도 대체로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첫째는 김영관, 김병남이 최근에 제시한 견해로 장수왕의 공격 이후에도 한성은 고구려에 점령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⁴⁾ 천관우, 성주탁, 차용걸도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웅진 천도 이후에 나타나는 한성관련 기사를 그대로 取信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대체로 이러한 견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 둘째는 장수왕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일시 남쪽으로 밀리기는 했지만 동성왕·무녕왕대에 걸쳐서 한강유역을 회복했다가 성왕 7년 五谷之原에서의 패배⁶⁾로 한강유역을 고구려에게 다시 빼앗겼으며 성왕 29년(551)에 백제가 다시 찾은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⁷⁾

두 번째 입장은 백제영유설의 다수 견해이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찬규는 동성왕·무녕왕대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북쪽으로 예성강에 이르는 옛 강역을 모두 회복하였으며, 꼭 오곡지원에서의 패배라기보다는 막연히 성왕 초년의 어느 시기에 다시 고구려에 빼앗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⁸⁾ 김현숙은 동성왕대 지속적으로 세력을 회복해온 백제가 무녕왕대에 비로소 한강유역을 회복하였으나 오곡지원에서의 패배로 한강유역을 다시 내줄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에는 한강을 사이에

4) 김영관, 「백제의 웅진천도 배경과 한성경영」, 『忠北史學』 11·12집, 충북대학교(2000), 79-89쪽;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영역」, 『白山學報』 64, 백산학회(2002), 141-153쪽.

5)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下)」, 『韓國學報』 39(일지사, 1976), 115쪽, 주)2; 성주탁·차용걸, 「百濟儀式考」, 『百濟研究』 12(1981), 80쪽.

6) 『삼국사기』권 26, 백제본기, 성왕 7년조에 “冬十月 高句麗王興安 躬帥兵馬來侵 拔北鄙穴城 命佐平燕謨 領步騎三萬 拒戰於五谷之原 不克 死者二千餘人”라 하였는데 穴城은 신라본기에 3번 등장하나 그것은 경주 근교의 지명이며 백제 본기의 것과는 다른 곳으로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정구복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420쪽; 五谷之原은 황해도 瑞興이 아닐까 추론하는 견해에는 〈이병도, 『역주삼국사기』(1977), 406쪽〉이 있다; 정구복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714쪽.

7) 양기석, 위의 논문(1980), 23쪽; 박찬규, 「백제 웅진초기 북경문제」, 『史學志』 24, 단국사학회(1991), 61-63쪽; 김현숙,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2003), 160-171쪽; 김현숙, 「고구려의 한강 유역 영유와 지배」, 『百濟研究』 50, 충남대백제연구소(2008), 34쪽; 김현숙은 최근 한강유역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석실분의 존재를 고구려 영역지배의 징표로 인정하면서도 무녕왕대에서 성왕 초년의 어느 시점(507년 이전)에 백제가 20여 년간(529년까지) 고대했던 한성고지 회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았다.

8) 박찬규, 위의 논문(1991), 65-66쪽.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했다는 입장⁹⁾이다. 전자의 입장은 웅진도읍 기 대부분의 기간에 백제가 한강유역을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백제의 한강 유역 지배를 무녕왕대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매우 한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2000년 이후 백제영유설은 신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추세에 가장 먼저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한 이가 노태돈이다. 노태돈은 『翰苑』, 『舊唐書』 『新唐書』, 『南山新城碑』 등의 자료를 활용해 백제와 신라의 지방지배체제를 비교하면서 475년 이후 이 지역에郡을 설치하고 직접적으로 영역지배를 실시했음을 논증하였다.¹⁰⁾ 이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의 접근으로 주목되었다. 이후 김영심, 김수태, 노중국, 임기환, 최종택 등이 통설의 타당성을 재확인 했다.¹¹⁾ 특히 노중국은 선행 연구성과와, 관련 문헌사료, 고고자료를 포괄적으로 인용하며 5-6세기 한강유역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웅진시기 백제본기의 지명관계 기사를 액면 그대로 취신할 수 없음을 정치하게 논증하였다.¹²⁾

한편 이러한 기사불신론의 견해도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째는 백제 왕실이 남천하면서 한성시대의 지명을 移置시킨 것으로 본 견해이다.¹³⁾

9) 김현숙, 위의 논문(2003), 160-171쪽; 김현숙, 위의 논문(2008), 34쪽.

10) 노태돈, 「고구려의 한성지역 병탄과 그 지배양태」, 『郷土서술』66(2005).

11) 김영심,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영역」,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2003), 118쪽; 김영심은 고구려의 한강 유역 정복을 군사적 요충지의 확보일 뿐 공고한 지배체제의 구축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수태, 「백제성왕대의 변경;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百濟研究』44, 충남대백제연구소(2006), 133-135쪽; 김수태는 백제본기에 보이는 무녕왕대 한강 유역 공격기사를 인정한 바탕위에 그것은 육로보다는 수군을 동원한 해로로의 진출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北方史論叢』11, 고구려연구재단(2006), 19-26쪽; 임기환,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검토」, 『百濟文化』37, 공주대(2008), 20쪽; 임기환은 지명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동성왕·무녕왕대의 한강 유역 일대의 전쟁 및 한성 영유기사는 아마도 진사왕-개로왕대의 기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종택,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百濟研究』28(1998), 156-158쪽; 최종택,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 유역 영유설 재고」, 『百濟研究』47(2008), 140-154쪽.

12) 노중국의 위의 논문(2006)은 475-551년 한강 유역 영유논쟁에 관한 쟁론적 성격의 글이다.

13) 이병도는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웅진도읍기에도 한강 유역 일대를 백제가 보유하고 있는 듯 보이는 기사들을 믿을 수 없다(『韓國史(古代篇)』, 진단학회(1959), 428-440쪽)고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이후 이기백에 의해 지명 이치설로 수용되었고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百濟研究』9, 충남대 백제연구소(1978), 14-15쪽; 노중국에 의해 보다 정밀한 추론으로 발전하였다. 위의 논문(2006), 19-26쪽.

예를 들면 이기백은 웅진시대의 한성을 직산에 비정하고 한성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에 대해, “대두성에 한강 이북의 민호가 옮겨졌 듯이 이 새 한성에 옛 한성의 민호가 옮겨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¹⁴⁾ 둘째는 사비시대에 와서 무녕왕계의 왕실이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상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시키고 “한성시대의 직계계승 왕통과 영토로의 회귀라는 사비시대 왕실의 현실적인 염원을 반영”하여 마치 한강유역을 백제가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¹⁵⁾ 셋째는 475년 이후 시점에서 일련의 한강 유역 관련 기사들은 백제가 한강 이북 지역을 확보하고 있던 4세기 후반의 사실이 거꾸로 내려가서 잘못 실린 결과로 본 것이다.¹⁶⁾

위와 같은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하여 김현숙은 최근 제3자적 입장에서 비교적 균형 있는 연구사적 검토를 가하고 “... 웅진기 백제의 한강 유역 영유설 가운데 이 지역을 고구려가 전혀 차지한 적이 없었다고 보거나, 한강 이북지역만 차지했을 뿐 한강 이남지역은 항상 백제 땅이었다고 보는 경우는 『삼국사기』지리지에 보이는 군현 기사에 대한 적실한 해명이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최근 기흥, 용인, 화성 등지에서 확인된 고구려계 석실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주거지나 고분 같은 영역지배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구려영유설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논거의 하나로 지적해 왔는데, 이제 관련 유적지가 출현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수 시안으로 대두되었다. 고구려영유설의 경우에는 무령왕대에 나오는 한성관련 기사나 한수 이북 지역에 대한 지배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¹⁷⁾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매우 적실하다고 생각한다.

14) 이기백, 위의 논문, 14-15쪽.

15) 이도학은 이와 관련해 “南遷後 한성시대 지명의 웅진시대 왕도 주변으로의 이동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넓게 보아 지명이치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도학은 “지명이동의 가능성은 인정되더라도 한수유역 소재 지명 모두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여 전적인 동의는 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계의 검토」, 『韓國史研究』45, 한국사연구회(1984), 23-25쪽; 김영심 또한 무녕왕대 자주 보이는 한강 유역 관련 기사들은 중국측 기록에 ‘更爲強國’했다고 표현 될 정도로 국권을 회복한 무령왕대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영유 의식이 부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의 논문(2003), 118쪽.

16) 강중훈,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계통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研究』42, 한국고대사학회(2006), 94-96쪽.

III. 관련 사료의 지명 검토

앞서 살펴보았듯이 475-551년 한강 하류 유역 領有國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쟁은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기본적인 쟁점은 주로 상치한 두 가지 사료 즉 『삼국사기』백제본기와 『삼국사기』지리지에 근거하여 어떠한 사료에 보다 신뢰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에 놓여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면 『삼국사기』백제본기와 지리지 기사가 어떻게 상충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삼국사기』백제본기 기사의 검토

이하는 475-551년 고구려와의 접전지 내지는 백제의 北境 요충지로 거론할 수 있는 지명이 등장하는 백제본기의 기사이다.¹⁸⁾

◎ 동성왕(479-501년)

- ① 4년; … 秋九月 靺鞨襲破漢山城 虜三百餘戶以歸 … (한산성; 남한산성)
- ② 5년; … 春 王以獵出 至漢山城 撫問軍民 浹旬乃還 … (한산성; 남한산성)
- ③ 8년; … 秋七月 重修宮室 築牛頭城 … (우두성; 강원도 춘천)
- ④ 12년; 秋七月 徵北部人年十五世已上 築沙峴耳山二城 … (사현; 충남 공주시 정안면<김영심, 「백제 지방통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7, 204쪽), 이산; <미> 현재의 위치는 미상이다. 충북 괴산의 尼聖山城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민덕식, 「高句麗 道西縣城考」, 『사학연구』 36, 사학연구회, 1983 참조).
- ⑤ 16년; 秋七月 高句麗與新羅戰薩水之原 新羅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圍之王遣兵三千救 解圍(견아성; <미> 충북 괴산 또는 경북 문경)
- ⑥ 17년(495); … 秋八月 高句麗來圍雉壤城 王遣使新羅請救 羅王命將軍德智 帥兵救之 麗兵退歸(치양성; 황해도 박천 『신증』)

17) 김현숙, 「475년-551년 한강 유역 영유권 인식에 대한 검토」, 『鄉土서울』 73(2009), 39쪽.

18) 지명의 위치비정은 정구복의 『삼국사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주석편 3, 4권을 참조하였다. <미>는 지리지 三國有名未詳地名條에 나오는 지명이며, 『신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가리킨다. 정구복의 『삼국사기』는 국내의 저명한 문헌사학자 5인이 공동으로 이병도의 『역주 삼국사기』를 비롯 그 동안의 제 『삼국사기』를 모두 망라하여 검토하였으며, 기타 지명관련 여러 논저까지도 참조하여 편찬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지명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이다.

⑦ 20년; … 秋七月 築沙井城 以扞率毗陁嶺之 … (사정성; <미> 충남 대전 사정동)

◎ 무녕왕(501-523년)

⑧ 2년; 冬十一月 遣兵侵高句麗邊境(구체적 지명 없음)

⑨ 3년; 秋九月 靺鞨燒馬首柵 進攻高木城 王遣兵五千 擊退之 … (마수책; 경기도 포천, 고목성; 경기도 연천)

⑩ 6년; … 秋七月 靺鞨來侵 破高木城 殺虜六百餘人(고목성; 경기도 연천)

⑪ 7년; 夏五月 立二柵於高木城南 又築長嶺城 以備靺鞨 冬十月 高句麗將高老 與靺鞨謀欲攻漢城 進屯於橫岳下 王出師 戰退之(장령성; 경기도 연천, 한성; 서울 몽촌토성 일대, 횡악; 경기도 삼각산)

⑫ 23년; … 春二月 王幸漢城 命佐平因友達率沙烏等 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已上 築雙峴城 … (한성; 서울 몽촌토성 일대, 쌍현성; <미>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아신왕대 ‘築’하였으며, 개로왕대 ‘改修’했다는 기사가 있다)

◎ 聖王(523-554)

⑬ 1년; 秋八月 高句麗兵至泚水 王命佐將志忠 帥步騎一萬 出戰退之(패수; 예성강)

⑭ 4년; 冬十月 修葺熊津城 立沙井柵(사정책; 충남 대전 사정동)

⑮ 7년(529); 冬十月 高句麗王興安 躬帥兵馬來侵 拔北鄙穴城 命佐平燕謨 領步騎三萬 拒戰於五谷之原 不克 死者二千餘人(혈성; 위치를 알 수 없다.¹⁹⁾ 신라본기에 나오는 혈성은 경주 부근의 지명이다. 오곡; 황해도 서흥)

⑯ 18년; 秋九月 王命將軍燕會 功高句麗牛山城 不克(우산성; 『신증』권 19, 청양현 고적조에 牛山城<충남 청양군 청양읍>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소지마립간 18년과 문자명왕 5년에 고구려가 신라 우산성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고구려가 함락시켰다)

⑰ 26년; 春正月 高句麗王平成 與濊謨 功漢北獨山城 王遣使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朱珍 領甲卒三千發之 朱珍日夜兼程 至獨山城下 與麗兵一戰 大敗之(독산성; <미> 충남 예산)

⑱ 28년; 春正月 王遣將軍達己 領兵一萬 功取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兵

19) 다만 혈성을 穴口郡으로 본다면 신라의 漢州 海口郡으로 지금의 강화도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圍金峴城(도살성; 충북 괴산군 도안면(민덕식, 「앞의 논문」, 1983 참조) 또는 충남 아산(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406쪽), 금현성; <미> 충북 진천군 진천읍(민덕식, 「앞의 논문」, 1983 참조) 또는 충남 순창(이병도, 『앞의 책』, 406쪽)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백제본기에는 동성왕 4년(482)부터 무녕왕을 거쳐 성왕 28년(550)에 이르기까지 18회에 걸쳐 고구려와의 접전지, 내지는 백제의 北境 요충지로 거론할 수 있는 지명이 등장한다. 문제가 되는 지명은 한산성(남한산성), 우두성(강원도 춘천), 치양성(황해도 박천), 마수책(경기도 포천), 고목성(경기도 연천), 장령성(경기도 연천), 한성(서울 몽촌토성 일대), 황악(경기도 삼각산), 쌍현성(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한강 이북으로 추정됨), 패수(예성강), 오곡(황해도 서흥) 등이다. 이와 같은 지명은 한강 이북으로 비정된다. 따라서 백제본기의 기사는 분명 475-551년 당시 한강하류유역이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지명이 가지는 문제점은 많은 선학들에 의해 지적되었지만 여기서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두 가지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현재 경기도 남부일대에 해당하는 지명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²⁰⁾ 『일본서기』흠명기 12년(551년)조의 기사²¹⁾에서 보듯이 551년에야 비로소 백제가 한성을 회복하였다면 그 이전의 戰役은 한강 하류 유역 이남, 현재 경기도 남부지역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강하류유역에서 경기도 남단까지는 70-80여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인데, 고구려의 한성함락 이후 당연히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전역의 중심지가 되었을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료의 신빙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한다.

둘째는, 지명이 현재의 충청남북도 일원과 경기도 북부지역에 한정됨

20) 이와 관련해 백제가 경기도 남부 일대를 고구려에 빼앗긴 적이 없기 때문이란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한강하류유역에서 5-6세기에 해당하는 백제의 관방유적이나 고분유적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으며, 최종택, 앞의 논문(2008), 130쪽 참조. 주로 고구려 유적만이 확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허다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백제본기의 기사만을 가지고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1) 『일본서기』흠명기 12년(551); 是歲 百濟聖明王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野) 王伐高句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으로써 지명이 제시하는 지역적 범위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크고 작은 전투와 함께 戰線은 가변적일 수 있으나 전선을 이룬 핵심지역이 아무런 흔적 없이 일거에 70-80여km를 이동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태는 해로상의 공격을 상정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²²⁾ 그러나 같은 지역에 대한 공격의 주체가 고구려인 경우, 그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²³⁾ 또 춘천으로 비정되는 우두성이나 포천으로 비정되는 미수책에 대한 공격은 결코 해로를 통한 공격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지명이 말해주는 사실은 475-551년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대치가 현실적으로 경기남부와 충청북부 일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일종의 반증이 아닌가 한다.²⁴⁾

2. 삼국사기 지리지 기사의 검토

『삼국사기』권 35 지리지 漢州條에 따르면 통일신라는 현재 한강하류유역과 경기남부에 위치 비정되는 여러 군현을 한주에 소속시켜 놓았는데, 한주에 속한 대부분의 군현이 본 고구려 □□군 또는 □□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漢山郡(하남시와 광주군 및 서울 강동구·송파구 일대), 黃武縣(이천), 巨黍縣(용인), 述川郡(여주군 흥천면), 骨乃斤縣(여주군 여주읍), 皆次山郡(안성군 죽산면), 奴音竹縣(이천시 장호원읍), 奈兮忽(안성군 안성읍), 沙伏忽(안성군 양성면), 蛇山縣(천안시 직산면), 買忽郡(화성군 봉담면), 唐城郡(화성군 남양면), 上忽縣(평택시 안중면), 栗木郡(과천), 仍伐奴縣(서울시 구로구, 광명시 일대), 濟次巴衣縣(서울시 양천구 일대), 買召忽縣(인천시 남구), 主夫吐郡(인천시 북구, 부천시 일대), 首尔忽(김포군 대곶면), 黔浦縣(김포군 김포읍), 童子忽縣(김포군 하성

22) 김수태, 「백제성왕대의 변경: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百濟研究』44, (충남대백제연구소, 2006), 133-135쪽.

23) 고구려의 한성이나 치양성에 대한 공격, 또는 말갈이나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해 장령성, 쌍현성을 쌓는 등의 조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어떤 지역에서의 축성은 일시적인 공격의 차원에서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24) 임기환도 “당시 충북일대가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상황에서 신라가 예성강지역까지 구원군을 보낸다는 것은 당시의 정세로 볼 때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피력,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검토」, 『百濟文化』37(공주대, 2008), 16쪽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매우 당연한 판단이다. 백제본기 동성왕 17년(495) 기사 참조; … 秋八月 高句麗來圍雉壤城 王遣使新羅請救 羅王命將軍德智 帥兵救之 麗兵退歸(치양성; 황해도 박천).

면), 平唯押縣(김포군 월곶면) 獐項口縣(안산) 등이 한강하류유역의 남안과 경기남부에 비정된다.²⁵⁾

이상과 같이 『삼국사기』지리지에 보이는 고구려 지명은 오늘날 경기도 남부 일대 대부분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비정은 조선시대의 각종 『읍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등에 대한 문헌사적 고찰과 지명의 음운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에 토대하고 있다. 이러한 고증은 반드시 부인할만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분명히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문헌고증학적 견해는 식민지시기 이래, 475-551년 고구려 한강영유설의 기반이 되어왔으며, 통설의 입지를 확보해온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삼국사기』지리지는 한강 하류 유역 이남, 현재의 경기도 남부지역이 552년 신라의 지배하에²⁶⁾ 들어가기 전까지는 명백히 고구려의 강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고구려가 한강이남지역에 군현제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으나 757년(경덕왕 16) 지명개혁 당시에 '잉벌노', '주부토' 등의 고구려식 지명은 틀림없이 살아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명의 생명력이 가지는 보수성을 고려한다면 220여 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⁷⁾

그러면 앞서 살펴본 『삼국사기』백제본기 지명관계기사와의 상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필자는 사료의 신빙성 문제에 관한한 백제본기와 지리지 기사는 동등하게 위치지워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²⁸⁾ 백제본기가 전하는 475-551년 사이의 영역관련 기사는 그대

25) 이상은 정구복의 『삼국사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권35, 37, 지리2, 4을 참조하였으나, 위치 비정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도읍지』, 그리고 오늘날의 각종 읍지와 시지 또한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지리 2 新羅 漢州 기사와 지리 4 高句麗 漢山州 기사를 비교하면 한주조에 고구려 군현명이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6) 『일본서기』흥명기 13년(552); 新羅人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 尼彌方(地名未詳).

27) 신라는 삼국통일 후 그 영토를 중국 고대의 9주 관념을 차용하여 국토의 행정·군사체계를 재편했다. 이러한 점은 지리지의 작위성을 강하게 암시함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신라 중대에 고구려식 지명을 인위적으로 창출하여 당시 새로 재편된 지명에 일일이 대입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지리나 백제본기의 사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성과로써 판단하자면 지리지의 작위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료적 가치는 백제본기보다는 우위에 놓일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28) 강종훈은 최근 백제본기 기사의 사료비판을 통해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백제본기에 실린 대외관계 기사들의 편년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의 논문」(2006), 93-99쪽.

로 신빙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반면, 지리지의 기사는 백제본기 기사와의 상치를 제외한다면 딱히 불신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 본기의 기사는 속성상 정치적 이해관계의 반영과 굴절을 피하기 어려운 반면 지리지는 그 서술대상에 어떤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지방과 지역에 대한 기술에 정치적 이해나 의도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문헌해석의 보완적 방법으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가 주요한 자료로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 단계까지 조사된 고구려 계통의 관방유적은 강역문제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가질 수 있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는 백제본기의 기사보다는 『삼국사기』지리지 기사의 신빙성을 높여 주고 있다. 한강 이남 여러 지역에서 고구려의 영역지배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지배층의 고분유적이 잇달아 발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IV. 한강 이남의 고구려 유적

1. 관방유적

한강 이남의 관방유적은 임진강유역과 한강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임진강유역에는 강 남북으로 여러 곳의 산성과 토성이 마주보고 있으며, 이 중 강북에 위치한 호로그루성지와 당포성지, 무등리성지, 은대리성지 등에서 고구려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 성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파편 상태여서 전체적인 기형의 파악이나 편년에는 문제가 있지만, 태토나 표면색조, 구연부의 형태 등에서 구의동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류와 유사하여 대체로 5세기 중엽경으로 볼 수 있다. 한강유역에는 구의동유적과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유적 그리고 몽촌토성내 고구려 유적이 있다. 구의동과 아차산 일대의 유적은 구룡의 정상부나 산 능선상의 봉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증거로 보아 군사요새로 추정된다. 또, 출토된 토기의 편년에 따르면 이들 유적의 중심연대는 5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된다. 몽촌토성내 고구려 유적에서는 광구장경사 이용이나 원통형삼족기 등의 특수한 형태를 가진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고구려식의 온돌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²⁹⁾

이러한 임진강과 한강유역에 산재한 고구려의 관방유적은 그동안 475-551년 고구려 한강 유역 영유설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되어졌다.³⁰⁾ 그러나 임진강과 한강 직근 거리에 있는 이러한 고구려의 관방유적은 고구려 한강 유역 영유설에 대한 증거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듯 보인다. 왜냐하면 유적의 대부분이 한강 이북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 몽촌토성내 고구려유적 출토토기의 폭이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몽촌토성의 점유기간은 길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³¹⁾ 이러한 점은 오히려 한강 이남에는 백제군이 장기간 주둔하며 한강 이북의 고구려군과 대치했을 가능성을 추론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 월평동유적이나 청원 남성골유적은 한강이남에서 남쪽 내륙으로 깊숙한 곳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대전 월평동 유적은 木柵, 城壁, 壕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목책①+호①, 성벽①+호②처럼 호와 목책 혹은 성벽이 결합된 경우도 있고 목책②, 성벽②처럼 단독인 경우도 있다. 축조된 순서는 목책① → 목책② → 성벽① → 성벽② → 월평산성으로 추정되며 이 중 성벽①이 6세기대 고구려군에 의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방어시설일 가능성이 있다.³²⁾

청원 남성골유적은 내·외곽을 이중으로 둘러 목책과 내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차단하는 4개의 호, 그리고 내곽 정상부 동문터의 석축벽체를 특징으로 하는 성곽유적이다. 雉城시설이 이미 목책 단계에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책 단계로부터 토축과 석축 성벽으로 발전하는 성곽축조 기술의 발전양상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다수의 수혈구덩과 토기가마,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외곽 내부의 집터에서는 고구려식 구들이 나타났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기종, 문양요소 등 여러 면에서 한강유역의 고구려유적과 환인, 집안 지역의 고구려유적에

29) 이상 임진강과 한강유역에 산재한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개괄은 최종택의 논문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百濟研究』28(1998), 158쪽을 참조 요약하였다.

30)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北方史論叢』11, 고구려연구재단(2006), 27-30쪽; 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경문화사(2006); 최종택, 앞의 논문(1998), 156-158쪽; 최종택, 앞의 논문(2008), 140-148쪽;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18, 서울학연구소(2002), 21-25쪽.

31) 임기환, 위의 논문(2002), 22쪽.

32) 국립공주박물관, 『대전월평동유적』, 국립박물관학술조사총서 8책(1999), 209-218쪽.

서 출토된 고구려토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철촉과 황공철부 등 철기류 역시 위 지역의 고구려유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³³⁾

그러나 두 유적은 상당한 규모를 가진 대형의 견고한 성곽유적이 아니고 목책을 중심으로 하여 성벽과 해자가 한시적인 방어시설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복합유적이다. 물론 남성골유적 출토의 고구려토기는 이 유적이 5세기를 중심연대로 하여 6세기 중엽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목책은 한시적인 방어시설의 용도로 설치되는 것이고 두 유적 모두 매우 부분적인 규모의 성벽만이 고구려군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영역지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구려군의 장기주둔과 인근 주민에 대한 직접지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³⁴⁾

다만 남성골유적이 5세기 후반 경부터 약 1세기에 걸쳐 지속된 군사시설이라는 사실은 적어도 이 기간 고구려 남단의 최전선이 지금의 충북일원에 계속적으로 형성·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충북일원에서 한강하류유역까지의 거리와 자연지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북방 戰線이 형성되었을 지리적 범위를 유추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백제본기에 나타나는 495년에서 529년 사이 한강-예성강유역에서 벌어지는 고구려와의 전투기사는 신뢰하기 어렵다.

2. 고분유적

현재까지 조사 보고된 남한내 고구려 고분으로는 ①여주 上里(梅龍里) 2고분³⁵⁾, ②通川 舊邑리 고분, ③驪州 甫通里 고분, ④연천 신답리 고분, ⑤춘천 천전리 고분, ⑥춘천 방동리 고분, ⑦성남 판교동 고분, ⑧용인

33)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원 남성골 고구려유적』(2004), 291-297쪽.

34) 노중국, 앞의 논문(2006), 27-30쪽을 비롯해 고구려영유설을 지지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유적에 주목하고 있지만, 영역지배의 설득력 있는 징표로써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5) 강인구는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의 문구 가운데 상리 2호분은 말각조정식의 天障 架構를 보이므로 고구려고분으로 판단함이 옳다고 하였다. 『驪州 甫通里的 古墳』,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1981), 45-46쪽. 많은 학자들이 상리(매용리) 고분군에서 보이는 石枕의 존재로 미루어 신라고분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필자는 강인구의 견해에 동의한다. 다만 유적의 상실과 보고서의 기록이 매우 간략함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보정동 고분, ⑨화성 청계리 고분, ⑩충주 두정리 고분 등이 있다.³⁶⁾ 이 가운데 5, 6세기 한강 하류 유역 영유국 논쟁과 관련해서는 여주 보통리, 성남 판교동, 용인 보정동, 화성 청계리의 고분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1) 여주 보통리고분(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해발 100여 미터의 보통리 마을 뒷산에서 뻗어 내린 西南 능선상의 끝 부분에 7기의 고분이 줄을 지어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된 고분은 능선의 맨 끝에 소재하고 있으며 봉토의 규모가 가장 크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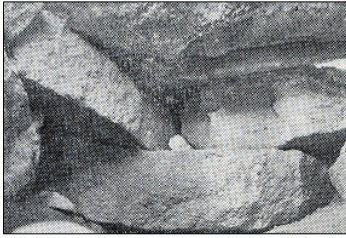
대형의 원형 봉토의 높이는 5.5m, 底徑은 12m이다. 내부 구조는 단실의 반지하식 횡혈식 석실을 하고 있다. 현실평면은 정방형에 가깝고 남북 중앙에 긴 연도를 달았다. 벽은 3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바닥에서 110cm 높이까지는 수직으로 올리고 그 위는 35cm 높이까지 內傾시켰고 그 위 천장석까지 나머지 부분은 長臺形 석을 抹角式으로 교대로 쌓아 천장을 짚다. 현실 바닥은 생토를 그대로 두었다. 현실평면은 동서벽은 270cm, 북벽은 244cm이며, 연도가 붙은 남벽은 입구 동쪽이 79cm 서쪽이 83cm이다. 그리고 현실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44cm이다. 연도는 길이가 310cm이고 폭이 82cm인데 장방형 석을 벽돌 쌓듯이 면을 반듯하게 6-8단 쌓고 개석을 덮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172cm이다. 현실 바닥의 北半 부분에는 屍床을 설치하였는데 동·서벽에 붙여 만들었고 북벽과는 12-15cm 가량 간격을 두었다. 석재는 벽돌형 석을 2단으로 쌓고 그 위에 80×40×7cm의 판상석을 놓아 상면을 만들고 높이 54-58cm, 너비 157cm로 하였다.

시상의 폭은 2인을 충분히 합장할 수 있는 면적을 하고 있으나 목관의 흔적으로 보아 單葬 一棺만을 시상 중앙에 안치하였음이 분명하고, 두개골편, 치아, 耳飾痕으로 보아 東枕, 伸展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물로는 두개골편, 치아, 금동제 이식, 철제도자, 철제원형구, 관정, 꺾쇠가 출토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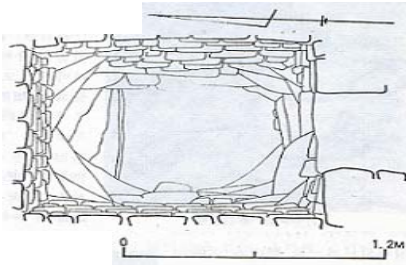
36) 강인구, 위의 논문(1981); 백종오, 「남한내 고구려 고분의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5집, 고구려발해학회(2009); 백종오의 논문에는 ①여주 상리(매용리) 2고분, ②통천 구읍리 고분, ③여주 보통리 고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고분을 신라고분으로 보고 있는 듯한데 여주와 통천의 석실분은 천장의 가구형식이 정연한 말각조정식이 틀림없는 만큼 고구려고분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이다. 상리 고분에 대해서는 주)33 참조.

37) 강인구, 위의 논문(1981); 한양대학교박물관, 『경기도 백제문화 유적』(1986).

있다. 高屍床의 형태나 그곳에서 발견된 금동의 細環耳飾은 부여 송산리 고분출토포품과 동일양식으로 보이므로 고분의 축조는 늦어도 6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이 남하한 고구려 주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그 시기에 양식만이 유입되었다가 단절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³⁸⁾



천장의 모서리 부분



석실 천장 실측도

여주 보통리의 고분은 분명한 말각조정식의 천장구조를 보이며, 따라서 틀림없는 고구려계통의 황혈석식실분으로 판단된다. 도굴분으로 연대나 계통을 확증할 만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발굴보고자는 高屍床의 형태나 그곳에서 발견된 금동의 細環耳飾은 부여 송산리 고분출토포품과 동일양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발굴보고자의 판단이 옳다면 백제 계통의 일정한 문화적 영향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고시상은 신라의 황혈석식실분에서 많이 보이나³⁹⁾ 삼국의 고분 모두에서 공히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장신구는 교류에 의한 이동성이 강한 유물임을 고려할 때, 고시상의 형태나 한 점에 불과한 耳飾은 고분의 계통 파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리라고 판단된다.

38) 강인구가 1970년 여주 보통리 고분을 발굴할 당시에 한강유역에서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분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로서는 이러한 문화적 전파나 주민의 이동 가능성을 염두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남, 용인, 충주 등지에서 고구려 석실분이 확인되고 있는 지금은 문화적 전파나 주민의 이동 가능성보다는 고구려의 직접적인 영역지배를 상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 절 마지막 부분에서 후술할 것이다.

39) 雙床塚, 忠孝里 고분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강인구는 高屍床을 고구려 고분의 특징으로 보고 있으나, 위의 논문(1981), 47-48쪽, 오히려 신라고분에서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성남 판교고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일원)

청계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말단에 해당하는 지역 구릉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합 2기가 발견되었는데 1기는 한 봉분에 2개의 석실이 조사 보고되었다. 조사 내용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⁴⁰⁾

1호 석실분은 한 봉분 안에 두 개의 석실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식 구조로 판단된다. 지표면 유실이 많이 이루어져 봉분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잔존 규모는 북-남 길이 10.2m, 동-서 길이 9.4m이다. 1-①호 석실분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묘실의 길이는 170cm, 너비 125cm, 깊이는 110cm이다. 벽석의 축조 방법은 20-80×10-30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1단은 가로 세워 쌓기 방식으로 2단은 세로 세워 쌓기 방식을 사용하여 45단으로 쌓아올렸다. 벽석의 빈 공간에는 작은 크기의 할석들과 회를 채워 넣었다. 그리고 모서리는 두 벽석이 서로 맞물리도록 축조하였다.

천장 구조는 북벽의 모서리에 대형 할석을 올린 후, 두 개석이 만나는 부분에 약 70cm 크기의 할석을 한 매 올렸다. 그리고 서벽에도 40-50cm 크기의 할석을 올려 천정부가 점점 좁혀지도록 하였다. 현재 동벽의 개석이 유실되어 정확한 천정의 구조는 알 수 없으나, 모줄임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입구와 연도는 남벽의 오른쪽에 치우쳐 시설되어 있다. 연도부에는 180-190cm 크기의 개석이 두 매 올려져 있는 상태이며, 입구는 길이 100cm, 너비 70cm의 대형 판석 1매를 문비석으로 사용하여 폐쇄하였다. 잔존하는 연도부의 길이는 240cm로 비교적 대형의 할석을 사용하여 연도부의 안쪽 면이 편평하도록 축조하였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1-②호 석실분은 1-①호 석실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축조되었으며, 천장 구조 또한 3개의 대형 할석이 남아있는 상태로 모줄임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입구와 연도는 또한 1-①호 석실분과 마찬가지로 남벽의 오른쪽에 치우쳐 시설되어 있다. 입구는 두 매의 판석을 문비석으로 사용하여 서로 중간 부분이 겹쳐지도록 세워서 시설하였다.

4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성남판교지구문화유적 2차발굴조사 5차지도위원회 자료」(2007).

연도부 잔존길이는 180cm, 너비는 80cm이고, 3단의 벽석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내부에서 철도자 한 점이 출토되었다. 1-①호 석실분의 동벽과 1-②호 석실분의 서벽이 접하는 부분은 벽석이 서로 맞물리도록 단을 올리면서 쌓은 것인데, 이로 추정해 볼 때 두 석실분은 동시에 축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호 석실분은 지상식 구조로, 봉분은 이미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나, 잔존규모는 북-남 길이 10m, 동-서 길이 9.2m이다. 묘실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묘실의 길이는 185cm, 너비 140cm, 깊이는 120cm이다. 석실분의 축조 방식은 1호 석실분과 동일하다. 벽체의 축조 방식은 20-60cm 크기의 할석을 세로 눕혀 쌓기 방식을 사용하여, 5-6단으로 축조하였다. 그리고 빈 공간에는 작은 크기의 할석들을 채워 넣었다. 모서리 부분은 벽석이 서로 맞물리도록 축조하여 평면상에서 직교하게 보인다. 내부에서는 서편에 치우쳐 소형의 할석과 밝은 갈색 점토가 시설되어 있는데, 시상대로 추정된다. 북동편 모서리에는 개석이 한 매가 놓여있으나 천정구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남벽은 유실되어 한단만이 남아 있으며, 남벽의 오른쪽에 치우쳐 입구와 연도가 시설되어 있다.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없다.



1-①호분 천장과 벽체



1-①호분 바닥과 연도

1-①호와 1-②호 석실분의 천장은 모줄임방식, 즉 말각조정식의 구조를 보이므로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할 수 있다. 2호 석실분 또한 1-①호, 1-②호와 직근 거리에 있고 북동편 모서리에 비스듬히 놓인 개석이

한 때 확인되므로 전체적인 천장구조는 말각조정식으로 판단, 역시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상부구조의 유실로 천장구조의 정연한 말각조정식 구조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는 평양이나 집안지역에 분포한 석실분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말각조정식의 천장구조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천장부의 모서리를 장대형의 판석으로 가로질러 놓아가며 천장부를 좁혀나가는 소위 말각조정의 천장기구양식은 아직까지 백제와 신라고분에서는 전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규모와 석실 내부 구조의 정교함이 지방과 중앙에 있어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천장부 말각조정식의 구조가 다소 정연하지 못한 형식이라도 고구려 계통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철도자 한 점 이외에 아무런 유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연대를 비정하기 어렵다.

3) 용인 보정동고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01-3번지)

해발 567m의 백운산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186m의 소실봉이 있고, 이 소실봉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가지상의 능선 말단부 경사면에 2기가 약 17m 거리를 두고 나란히 확인되었다.⁴¹⁾

1호분의 분구는 이미 유실되었으며 최초로 노출된 유구의 규모는 가로 5m, 세로 5m의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중앙에 대형의 화강암 석재 4매가 사방으로 놓여 있었다. 석실은 단실의 반지하식이며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벽체는 활석을 이용하여 7-8단을 쌓아올렸는데 하부의 2-3단은 비교적 정연히 쌓았으나 상부로 올라갈수록 불규칙하게 쌓아 올리며 내경시켰다. 특별한 시상구조는 나타나지 않았고 바닥의 남동쪽으로 목관을 놓았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천장의 구조는 벽체의 모서리에 115×76×42cm 크기의 대형 활석을 써서 모줄임하였다. 모두 4매의 모줄임돌과 연도부 개석 2매가 확인되었으며 연도는 동벽의 북쪽으로 설치되었는데 연도부의 끝에는 폐쇄석을 불규칙하게 쌓았다. 조사지는 4매의 모줄임돌 상부에서 조선시대 교란층이 나타나 천장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석실내부 조사과정에서 대형의 활석 3매가 확인되어 4매의 모줄임돌 상단에는 1단 이상의 모줄임돌이 존재하고, 그 위에

41) 이한용·윤중현, 「용인 보정동 고구려 석실묘 발굴조사」, 『계간 한국의 고고학』, 가을호 (2007).

마감들을 엮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물은 연질토기 1개체분과 목관에 사용하였던 관정과 관고리 등 관부자재가 다수 출토되었다.

2호분은 1호분에서 남쪽으로 1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2호분 역시 분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2호분은 1호분과 달리 상부의 모줄임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개석 1매가 놓인 상태로 전체적인 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었다. 석실은 1호분과 마찬가지로 단실의 반지하식이며 장축 또한 동서방향이다. 벽체 역시 활석을 이용하여 1호분과 비슷한 방식으로 쌓았고 연도도 동벽의 북쪽 모서리부분에 설치하였다. 벽체 상부에서 바닥시설까지는 약 130cm이며 특별한 시상구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사지는 관정과 관고리의 출토양상으로 보아 바닥의 남동쪽에 목관을 놓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물은 흑색마연토기 1개체분과 목관에 사용하였던 관정과 관고리 등 관부자재가 대부분이다. 천장의 구조는 1호분과 달리 확인되지 않았고, 개석만 1개 드러났는데, 조사지는 상부가 조선시대 교란층이어서 천장구조는 후대에 교란되어 망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1호분 천장 평면



1호분 출토 연질토기

1호분은 조사자의 의견과 같이 틀림없는 말각조정식의 천장구조를 갖춘 것으로 판단, 고구려 계통으로 볼 수 있다. 2호분에서 천장구조는 교란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으나 벽체의 축조 기법, 묘실의 방향이나 연도의 위치가 직근 거리의 1호분과 같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호분 역시 말각조정식의 천장을 가진 고구려 계통의 고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연질토기와 흑색마연토기가 백제토기일 가능성이 지적되었다.⁴²⁾ 분묘 자체의 구조양식은 장송의례의 한 부분을 이루는 전통성이 강한 것으로 한두 세대의 시기에 쉽게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반면, 토기와 같은 유물은 교류 등에 의한 이동성이 강한 것이다. 또 현지 주민 문화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차용했을 가능성이나, 청주 주성리 1호분에서 볼 수 있듯이 황혈식석실분은 후대에 다른 매장자에 의해 추가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⁴³⁾을 고려한다면 발굴자의 보고와 같이 고구려계통의 황혈식석실분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화성 청계택지지구고분(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도시 청계택지지구)

석실분 4기가 조사되었으나 4기 모두 고분의 상부구조는 유실되어 알 수 없다. 1호와 2호 석실분은 석실의 남벽 오른쪽에 치우쳐 조성한 연도가 뚜렷이 남아 있어 황혈식의 구조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3호와 4호는 유실이 심하여 연도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1호와 2호는 조사지역 북서쪽의 남향하는 사면에 등고선과 직교하게 위치하였는데 한 봉분 내에 2기의 매장주체부가 조성되어 있다. 1호 석실묘에서는 고구려계로 추정되는 토기로 흑색미연호의 호가 출토되었다.⁴⁴⁾



1·2호 석실분



흑색 미연호

42) 풍납토성 발굴단 일원인 신회권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과 동양대 이한상 교수 등은 “유물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진만으로 검토한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한결 같이 이들 토기가 고구려계임을 부정하면서 “전형적인 백제토기”라고 말했다. 신회권 연구관은 “흑색미연토기는 그 자체가 전형적인 백제 토기임을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에서 확인되는 과상문 또한 풍납토성 출토 백제토기에서 무수히 확인된다”면서 “적갈색연질토기 또한 그 양상으로 보아 고구려 토기는 될 수 없으며,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가 발전한 백제토기”라고 말했다. 김태식기자, 《연합뉴스》(2007.4.27).

43) 청주 주성리 1호 백제석실분에서는 도합 5차에 걸친 추가장이 확인되었는데, 이남석은 초기에 매장된 백제시대의 유물이 한 쪽으로 치워지거나 整地 혹은 청소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신라 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매장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남석, 「서울 지역 삼국시대 석실분의 연구」, 『郷土서울』66(2005), 71-72쪽.

44) 백종오, 위의 논문(2009), 227쪽; 한백문화재연구원, 「화성 청계지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2008.9.10).

상부구조의 유실로 천장부를 확인할 수 없다. 1호와 2호 석실분의 구조는 성남 판교동 1-①호, 1-②호분과 같이 한 봉분 안에 2개의 석실이 마련되었으며 입구와 연도 또한 남북의 오른쪽에 조성된 우편 연도형이다. 석실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인데 석실의 장단비 또한 판교 고분과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쌍실분은 평양 대성산 식물원5호분과 안학궁 3호분,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 1호분 등이 있다.⁴⁵⁾ 석실의 구조는 고구려 계통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또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되는 흑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우선은 고구려 계통의 고분으로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지금까지 경기남부 일원에서 발굴, 보고된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되는 횡혈식 석실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는 고분의 편년과 계통을 파악함에 천장의 가구방식을 위시한 석실의 내부구조가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신구, 토기와 같은 유물은 그 계통과 편년에 논란이 있으며 교류에 의한 이동성이 강하다. 屍床이나 石枕 역시 석실 내부에 안치되는 일종의 장치로서 계통과악의 1차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나 유물들은 계통 파악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주 보통리, 성남 판교동, 용인 보정동의 석실분 5기 모두에서 연도를 갖춘 석실과 말각조성식의 천장가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백제나 신라고분에서 이러한 천장가구법이 확인된 예가 없으므로 이 고분들을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한다. 또 상부구조는 알 수 없으나 석실의 구조와 출토된 토기로 보아 화성 청계리 석실분 2기 역시 고구려계통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유적의 편년은 보고지들과 연구자들이 대부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경으로 판단⁴⁶⁾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이와 같이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 역시 『삼국사기』지리지에 입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분묘는 그 자체의 보수성으로 하여 새로운 분묘양식의 출현은 정치세력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왔다. 특히 지배층 분묘의 변화는 새로운 지배층의 대두를 암시하는 것이다. 또 횡혈식석실분은 귀족계층의 분묘로써 그 축조에는 고도의 기술력과

45) 백종오, 위의 논문(2009), 237-239쪽 참조.

46) 백종오, 위의 논문(2009), 245쪽.

많은 인력·물력이 소요되며 후대의 안정성을 고려해 후방에 조영됨으로 확고한 영역지배로써의 징표가 된다.⁴⁷⁾ 따라서 황혈석식실분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56세기 한강 하류 유역 영유국 논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이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한강 이남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계통의 석실분을 주민의 이동 또는 이 지역에 전파된 고구려 문화로 이해하려는 시각⁴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토기, 장신구와 같은 유물이나 영주 순흥의 고분벽화와 마찬가지로 석실의 구조양식 또한 단순한 문화의 전파 현상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 전파의 영향력 정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장송의례는 여러 문화요소 중에서도 보수성이 가장 강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분묘의 내부구조는 구조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그러한 구조를 축조 가능케 할 수 있는 기술력의 동반으로 인해 어지간한 변화의 충격에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지배층의 분묘는 그 자체가 지배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475-551년 백제와 고구려는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대결의 와중에 백제 지배층이 고구려 지배층의 분묘 양식을 고스란히 수용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⁴⁹⁾ 고구려계 주민의 집단이주의 가능성 또한 아직 어떠한 문헌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추론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로써 5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 일대의 고구려계 석실분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던 고구려 지배층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주 보통리 고분을 제외한 성남, 용인,

47) 이런 점에서 “한강유역은 오랜 기간 전장이 벌어졌던 현상으로 … 475년부터 507년 이전 어느 시점까지는 고구려가, 507년에서 529년까지는 백제가, 529년부터 551년까지는 다시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지배했었던 것”으로 보고, 고구려계 석실분은 고구려가 지배 했던 어느 시기에 축조 되었을 것이라고 한 김현숙의 견해(김현숙, 앞의 논문, 2008, 34-35쪽)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후대의 안정성을 염두 한다면 전장의 직근 거리에 묘지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8) 김현숙, 앞의 논문(2008), 41쪽.

49) 백제 지배층이 고구려의 분묘 축조기술, 즉 말각조정식의 천장가구법을 수용했다면 웅진·사비 도읍기 전형적인 백제고분에서 이러한 양식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또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첨예한 대립 관계를 고려한다면 변방지역의 특수한 문화적 변용 양태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석촌동 일대의 적석총은 문화의 전파이기 보다는 온조·비류계라는 백제 건국집단의 남하와 함께 이루어진 고유한 계승 문화로 파악함이 옳다. 온조, 비류, 구태의 전승설화는 분명 백제의 건국 주체가 고구려 지방에서 남하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의 고분들이 최근 발굴조사된 것이어서 이들 고분들을 검토함에 부득이 약보고서나 지도위원회자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면 개별 고분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양해를 구한다.

V. 맺음말

본고는 475-551년 한강 유역 領有國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관련하여 『삼국사기』백제본기와 『삼국사기』지리지기사가 갖는 사료상의 난맥을 살펴보고 관방유적이 갖는 영역지배로써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고구려 영역지배의 적극적인 증좌로써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고구려 계통의 석실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제본기에는 현재 경기도 남부일대에 해당하는 지명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백제본기에 따르면 한강 하류 유역 이남, 현재 경기도 남부지역이 戰役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한강하류유역에서 경기도 남단까지 70-80여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료의 신빙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게 한다. 또 지명이 현재의 충청도 일원과 경기도 북부지역에 한정됨으로써 지명이 제시하는 지역적 범위의 편차가 너무 크다. 크고 작은 전투와 함께 戰線은 가변적일 수 있으나 전선을 이룬 핵심지역이 아무런 흔적 없이 일거에 70-80여km를 이동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사료의 신빙성에 관한 『삼국사기』백제본기와 『삼국사기』지리지는 동등하게 위치 지워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백제본기가 전하는 475-551년 사이의 영역관련 기사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반면, 지리지의 기사는 백제본기 기사와의 상치를 제외한다면 딱히 불신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 『삼국사기』지리지는 한강 하류 유역 이남, 현재의 경기도 남부지역이 552년 신라의 지배하에⁵⁰⁾ 들어가기 전까지 명백히 고구려의 강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명의 생명력이 가지는 보수성으로 인해 ‘임별노’, ‘주부토’와 같은 고구려식 지명은 757년(경덕왕 16) 지명 개혁 당시까지도 살아있었던 것이다.

50) 『일본서기』흥명기 13년(552); 新羅人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 尼彌方(地名未詳)

임진강과 한강 직근 거리에 있는 고구려의 관방유적은 대부분 한강 이북에 위치해 있음으로 고구려 한강 유역 영유설에 대한 증거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듯 보인다. 또 몽촌토성내 고구려유적 출토토기의 폭이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몽촌토성의 점유기간은 길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점은 오히려 한강 이남에서 백제군이 장기간 주둔하며 한강 이북의 고구려군과 대치했을 가능성을 추론케 한다. 대전 월평동유적이나 청원 남성골유적 또한 당당한 규모를 가진 성곽이 아니고 목책을 중심으로 성벽과 해자가 방어시설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한시적인 방어시설이다. 이러한 성격의 유적으로는 고구려군의 장기주둔과 영역지배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논란의 외중에 1970년 여주 보통리와, 2000년 이후 성남 관교동, 용인 보정동, 화성 청계리에서 발굴조사된 석실분 7기 모두가 고구려계통의 석실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강하류유역을 위시한 경기 남부지역에서 백제계통의 지배층 고분이나 관방유적을 확인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⁵¹⁾ 이러한 고구려계통의 석실분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지배층 묘제의 변화는 새로운 지배층의 대두를 암시하는 것이다. 또 황혈석석실분은 고도의 기술력과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며 후대의 안정성을 고려해 戰役의 중심지가 아닌 후방에 조영됨으로 확고한 영역지배로서의 징표가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성과를 고려할 때 5-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일대의 고구려계 석실분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던 고구려 지배층의 무덤으로 판단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51) 주)19 참조.

참 고 문 헌

-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일본서기』.
- 『신증동국여지승람』.
- 『경기도읍지』.
- 강인구, 『한반도의 고분』, 아르케, 2000.
- 국립공주박물관, 『대전월평동유적』, 국립박물관학술조사총서 8책, 1999.
- 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경문화사, 2006.
- 이병도, 『한국사(고대편)』, 진단학회, 1959.
-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원 남성곡 고구려유적』, 2004.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성남관고지구문화유적 2차발굴조사 5차지도위원회 자료」, 2007.
- 한양대학교박물관, 『경기도 백제문화 유적』, 1986.
- 한백문화재연구원, 「화성 청계지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08. 09. 10.
- 강인구, 「驪州 甫通里의 古墳」,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 강종훈,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계통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研究』42, 한국고대사학회, 2006.
- 김수태, 「백제성왕대의 변경: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百濟研究』44, 충남대백제연구소, 2006.
- 김영심,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영역」,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영역」, 『白山學報』64, 백산학회, 2002.
- 김영관, 「백제의 웅진천도 배경과 한성경영」, 『忠北史學』11·12집, 충북대학교, 2000.
- 김현숙,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 김현숙, 「고구려의 한강유역 영유와 지배」, 『백제연구』50, 충남대백제연구소, 2008.
- 김현숙, 「475년-551년 한강유역 영유국 인식에 대한 검토」, 『향토서울』73, 2009.
-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北方史論叢』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 노태돈, 「고구려의 한성지역 병탄과 그 지배양태」, 『향토서울』66, 2005.
- 박찬규, 「백제 웅진초기 북경문제」, 『史學志』24, 단국사학회, 1991.
- 백종오,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 『선사와 고대』28, 고대사학회, 2008.
- 백종오, 「남한내 고구려 고분의 검토」, 『高句麗渤海研究』35집, 고구려발해학회, 2009.
- 성주탁·차용걸, 「百濟儀式考」, 『百濟研究』12, 1981.

- 이기백,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百濟研究』9, 충남대백제연구소, 1978.
- 이남규·권오영·문동석, 「경기 남부 백제유적의 분포양상과 역사적 의미」, 『百濟研究』 40, 2004.
- 이남석, 「서울 지역 삼국시대 석실분의 연구」, 『鄉土서울』66, 2005.
-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계의 검토」, 『韓國史研究』45, 한국사연구회, 1984.
- 이도학, 「백제 웅진기 한강유역지배 문제와 그에 대한 인식」, 『鄉土서울』73, 2009.
- 이한용·윤중현, 「용인 보정동 고구려 석실묘 발굴조사」, 『계간 한국의 고고학』, 가을호, 2007.
-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18, 서울학연구소, 2002.
- 임기환,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검토」, 『百濟文化』37, 공주대, 2008.
- 양기석, 「웅진시대의 백제지배층 연구」, 『史學志』14, 단국사학회, 1980.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73, 2009.
- 주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北方史論叢』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 최종택,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百濟研究』28, 1998.
- 최종택,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百濟研究』47, 2008.
-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下)」, 『韓國學報』3, 일지사, 1976.

국 문 요약

본고는 먼저 475-551년 한강 유역 領有에 관한 최근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인 관련 사료인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삼국사기』 지리지 기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 단계에서 고구려 계통의 관방유적이 영역 문제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짚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고구려 영역지배의 적극적인 증거로써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고구려 계통의 석실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는 사료의 신빙성에 관련한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삼국사기』 지리지는 동등하게 위치 지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백제본기가 전하는 475-551년 사이의 영역 관련 기사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반면, 지리지의 기사는 백제본기 기사와의 상치를 제외한다면 딱히 불신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지리지는 한강 하류유역 이남, 현재의 경기도 남부지역이 552년 신라의 지배 하에 들어가기 전까지 명백히 고구려의 강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임진강과 한강 직근 거리에 있는 고구려 관방유적은 대부분 한강 이북에 위치해 있음으로 고구려 한강 유역 영유설에 대한 증거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듯 보인다. 대전 월평동유적이나 청원 남성골유적 또한 한시적인 방어시설로서 이러한 성격의 유적으로는 고구려군의 장기주둔과 영역지배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1970년 여주 보통리와, 2000년 이후 성남 판교동, 용인 보정동, 화성 청계리에서 발굴조사된 석실분 7기 모두가 고구려석실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강 하류 유역을 위시한 경기 남부지역에서 백제 계통의 지배층 고분이나 관방유적이 전무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고구려 계통의 석실분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에 힘입어 필자는 5-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일대의 고구려석실분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던 고구려 지배층의 무덤으로 판단하였다.

투고일 2010. 1. 10.

수정일 2010. 2. 22.

게재 확정일 2010. 3. 5.

주제어(keyword) 『삼국사기』 지리지(『Samguk sagi』 Jiriji), 백제본기(Baekjebongi), 관방유적(Gwanbang remains), 고구려석실분(Goguryeo seoksil-bun), 영역지배(territory domination)